

작품 : 김정순 크리스티나
(장산성당·부산가톨릭미술인회)

연중 제30주일

제 1 독서 예레미야서 31,7~9

화답송 시편 126(125), 1~2 가. 2 다. 3. 4~5. 6 (© 3 참조)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후렴)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1.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2.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3.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겟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4.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 2 독서 히브리서 5,1~6

복음환호송 2티모 1,10 참조

◎ 알렐루야.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

복 음 마르코 10,46~52

영성체송 시편 20(19),6 참조

당신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이다.

위령의 날 미사
11/2(금) 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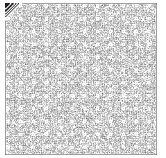
양산 천주교 공원묘지(하늘공원) : 손삼석 주교
경주 공원묘원 : 권지호 신부(울산대리구장)
용호동 천주교 묘지 : 용호성당 주임신부
■ 준비물 : 매일미사, 가톨릭성가

● 양산(하늘공원) 방면 교통편
(신청 및 문의 : 247-5858)

1. 출발 : 09:00, 온천장 지하철역 3번 출구 앞
2. 왕복 교통비 : 1인 13,000원
(국민 116-25-0007-226 씨퍼여행사)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바르티매오가 청했던 ‘볼 수 있는 삶’을 묵상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성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가사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나는 한때 길을 잃었으나 이제 그분이 나를 찾았고, 한때 장님이었으나 이제 나 보이네.” 성경에서 ‘보지 못함’이 죄의 상태를 뜻하고, 다시 ‘보게 되다’는 회개의 삶을 뜻한다면, 오늘 바르티매오가 청했던 것은 다름 아닌 회개의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오로도 회심 사건을 통해 눈이 열리자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로 삶을 전환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윤리와 영성생활’ 수업 때 자주 접했던 은사님의 짧은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보느냐가 다르게 행동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각이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을 열어 줍니다.” 이 글은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어떻게 연결되어 작동하는지 보여줍니다. 어떤 행동이 그냥 나온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정체성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자각 때문에 세상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바르티매오가 볼 수 있는 삶을 청했듯이, 우리도 먼저 주님의 뜻에 맞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청해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시선으로 세상을 ‘다르게’ 보려면,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누구인지지를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 환호송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그리스도,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신 분”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보여주신 그분 덕분에 예전엔 보지 못했던 가치를 다르게 보는 눈이 열렸고, 복음의 가치에 따라 세상을 다르게 판단하기에, 그분의 뜻을 먼저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복음의 기쁨 때문에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한 주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이웃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만나 뵙고, 그분이 의롭게 여기는 일을 먼저 실천하는 한 주간이시길 기원합니다.

최성욱

토마스아퀴나스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관상어 구피가 새끼를 낳았어요.
채송화 씨앗보다 더 작고 까만
그 두 눈밖에 보이지 않는 생명,
마음이 쓰여
자꾸 어항을 들여다보다가
.....

나를 보고 계실
하늘 아버지 눈길이
문득 떠오릅니다.

글. 장정애 마리아고레피 시인(만덕성당)
그림. 최창임 프란치스카 화가(성가정성당)

Chang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MHz 94.3 MHz 101.5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10.29(월)~30(화)
임성환 신부(구봉성당 주임)
10.31(수)~11.3(토)
한상엽 신부(사직성당 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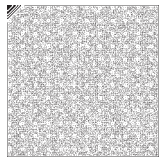
사랑이 있는 세상 월~목 12:15~14:00
진행 : 우지민 유스티나

10.31(수) 오늘의 가톨릭 뉴스
- 라우다떼 윈드 앙상블 제9회 정기연주회
출연 : 임영천 헬레나 리포터

10. 리포터
출연 : 정윤희 아네스(활천성당)

다정다감, 다섯시 월~금 17:00~18:00
진행 : 조운진 비비안나

10.30(화) 별 다섯 개 영화음악 - 친숙한 영화 음악을 들어보고, 발정도 매겨보는 시간
출연 : 오성은 음악칼럼니스트



2016년 아내 글라라와 함께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왔다. 한 해 앞서 혼자 다녀온 아내가 무엇이 좋았던지 값싼 비행기 표를 예약하여 나도 용기를 내어 함께 출발했다.

내 체중 위에 지워진 10kg의 등짐은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였지만 글라라와 함께 피레네 산맥을 넘어 산티아고를 거쳐 목시아, 피스테라를 돌아 다시 산티아고로 입성하는 921.1km의 긴 장정을 34일 만에 마쳤다. 이어 20일간의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고도와 성지를 찾아 보고 54일 만에 귀국하여 서울의 절두산 성지를 찾아 무사히 돌아온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야고보 성인의 시신이 닿았다는 목시아에 도착하여, 밀려와 부서지는 대서양의 하얀 포말에 피로를 씻기도 했다. 기어이 산티아고에 입성하여 수많은 인파와 화려한 성전과 흔들리는 향로의 성찬에 넋을 잃기도 했다.

새벽같이 일어나 미명의 들길을 나서면 촉촉한 이슬이 바지를 적시고 신선한 감촉이 생기를 불어넣는다. 이어지는 아침기도와 삼중기도를 마치면 하루의 긴 여정이 밝아오는 새 아침과 함께 시작된다. 등뒤로 내리쬐는 햇살은 숨을 막히게 하였지만, 쉼 새 없이 바치는 목주의 기도 속에 내 신앙의 현주소를 되새기고 과연 이 고난의 길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곰곰이 생각하며 걷기도 했다.

어느 작은 마을에 마침 미사가 있어 조심스레 미사에 참여하였다.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신부님의 복음 봉독에서 훌쩍이고 있는 내 모습을 가까이 앉아있던 아내의 시선에서 느꼈다. 진지하고 겸손한 자세로 성경을 봉독하는 신부님의 모습에서 내가 찾아가는 야고보 성인에 이어 야고보 성인이 목숨을 걸고 전도의 길을 나섰던 이 산티아고 길 위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갔다. 내 미약한 존재도 그 길 위에 함께 한다는 것, 비로소 내가 찾아가는 존재가 산티아고의 경관도 야고보의 전설도 아닌 바로 예수님 그분이라는 것을 느꼈던 것이다. 내 작은 믿음에도 문득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복음을 읽는 신부님의 모습에서 느끼고 보게 된 것이다.

감기와 몸살을 견디고 가까스로 회복한 나의 지친 몸은 생기를 얻었고 남은 여정에 힘이 되었다. 나의 나약한 정신에 문득 찾아오신 주님. 만나는 사물마다 사람마다 아름다운 빛깔로 나에게 다가왔다. 땀에 젖어 있는 지친 몸이란 어찌지 못하는 실존의 멍에를 짊어졌지만 우리는 순례를 마치는 시간까지 두 다리와 두 개의 지팡이에만 의존하여 긴 여정을 마칠 수 있었다. 감사하게도.

정경수 대건안드레아 정관성당, 수필가 su303@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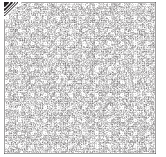
환경과 생명 논과 밭이 사라진다면

논과 밭은 공장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경쟁력이 없는 분야의 도태(퇴출)는 자본주의의 상식이며, 이를 억지로 살려내려고 하면 오히려 시장이 왜곡되어 더 큰 화를 불러온다고 합니다. 농업도 예외가 아니라 국내 농가가 효율적인 농사를 지을 능력이 없다면, 값싸고 품질 좋은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면 된다는 논리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농민도 참 딱하기 짝이 없습니다. 경쟁력도 없고 농업소득도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는데 왜 이직을 하지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미련스럽게도 요지부동입니다. 이처럼 농촌의 현실은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농촌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봅시다. 온 나라가 도시로 가득 차고, 가을이면 황금 물결로 넘실거리는 논이 사라진다고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먹는 모든 농산물은 항구나 공항으로 들여와 시장이나 마트로 직행하

게 된다고 생각해봅시다. 농촌이라는 공간, 농사라는 일은 단순히 인간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터전과 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꿈꾸었고 또 현실이 된 것처럼, 통제된 시설 내에서 빛, 온도, 습도, 영양액 조성, 대기가스 농도 등 재배환경조건을 인공적으로 제어하여 계절이나 장소와 관계없이 공산품처럼 연속 생산하는 식물공장(plant factory)을 지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장담합니다. 논밭이 사라지고 식물공장으로만 가득 찬다면 자연은 더욱 빨리 파괴되고, 우리의 삶은 더욱 각박해질 겁니다. 그리고 인간도 마치 돔과 같은 구조물을 지어 외부와 차단된 인공의 시설 속에서 생존해야 할 겁니다. 분명 이것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됩니다. 창조주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고백은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는 생태보존과 농촌 살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농 본부(051-464-8495) woori-pusan@hanmail.net

올해 사목지침대로 잘 살고 계십니까? 마무리 할 때가 다가옵니다.



“우아! 신부님들만 모셨던 주님의 피를 우리도 모시다니!” 목요일 저녁미사 때마다 양형성체를 한동향성당 신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변화에도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가정성당은 주님의 삶을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매일 미사 때마다 성경말씀을 풀이해 주었더니, 신기하게도 미사 참례자 수가 늘었습니다.

사직대건성당은 미사 전, 후 신부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목위원들이 마당에서 신자들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작은 모습에 큰 감동과 고마움이 느껴집니다.



“주보 배달 왔습니다.” 해운대성당 신자들은 매주 주보를 들고 다니며, 성당 인근 병원을 방문하여 내외객들과 환우들에게 주보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딩동! ○○○형제님 댁입니까?” 다대성당은 본당 신자 가정의 냉담 현황을 파악하여, 신자들이 직접 냉담교우 집을 방문하여, 초를 선물하고, 교회로의 회두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꽃바위성당, 청학성당은 미사 중에 매달 목주기도를 많이 봉헌한 신자들에게 성모상, 상금을 수여하여, 신자들에게 목주기도 봉헌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우리 교구 공동체에서 교구 초창기 신자들의 열정을 이어가고자 선포된 '믿음의 해'가 끝나갑니다. 남은 동안 실천지침들 다시 되새기면서, '믿음의 해'를 잘 마무리 하도록 합시다.



주일에 일하지 말고 쉬라는 파공의무가 여전히 유효한지요? 하는 일에 따라 밤낮이 따로 없고, 평일과 휴일의 구분도 모호해진지 오래라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구약성경의 안식일에 대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은 쉬을 지켜야 하는 계명, 하느님께서 내리신 요청으로 이해합니다.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이건 특별한 가르침입니다.

거룩한 것은 대개 장소와 관련 있습니다. 성지니 성소니 하는 단어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규정은 장소가 아닌 시간을 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독특한 관점입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일정한 장소에 터를 잡고 살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삶을 바꾸고 더 낮게 만들기 위해 살고 있는 집과 주변 환경,

타고 다니는 차 등에 신경을 씁니다. '장소'를 개선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그런 장소가 아니라 시간을 질적으로 더 낮게 고치라고 요구합니다.

시간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흘러가 버려 잡을 수 없기에, 내가 거기에 맞춰야 합니다. 성경이 안식일을 계명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지나가는 시간을 붙잡아 규칙적으로 쉬게 하려는 배려입니다. 옛세 일하고 하루 쉬신 하느님을 따라 쉬십시오. 꼭 주일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쉬 속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여유와 기쁨이 생겨날 것입니다.

홍경완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학장)
jubo@catb.kr

노인대학 봉사자의 날

지난 10월 22일(월) 남천성당에서 '노인대학 봉사자의 날' 행사가 본당 노인대학 학장 및 봉사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묵주기도를 시작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손삼석 주교의 주례로 기념미사 봉헌, 장기근속 봉사자 시상식(5년-조애란 외 54명, 10년-손리라 외 39명, 15년-유정분 외 8명), 힐링의 시간 순으로 진행되었다.

손삼석 주교는 미사 강론을 통해 “신앙을 믿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인대학연합회(지도: 이장환 신부, 회장: 김종철 레오) 주관

메리놀병원, 의료 취약 계층 당뇨병 관리 협약식



메리놀병원(병원장: 손창목 가브리엘)은 지난 10월 10일(수) 1층 회의실에서 노동사목과 (주)아이센스와 이주 노동자와 의료 취약계층들을 위한 당뇨병 교육 및 관리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청년 참행복 축제 - "행복하여라. 내 길을 따르는 이들"(잠언 8,32)

지난 10월 21일(일) 김범우순교자성지에서 교구 청년 3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4회 청년 참행복 축제'가 열렸다. 이날 청년들은 지구별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쳤으며, 도전! 골든벨, 보물찾기, 미사 봉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신앙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사목국(담당: 정철용 신부) 주관

'본당의 날' 축하합니다.



10월 21일(일) 쇠평산림목장
주임: 권경렬 신부, 회장: 김종근 요셉



10월 21일(일) 테레사여자고등학교
주임: 김주현 신부, 회장: 이영숙 아녜스



10월 21일(일) 사직실내체육관 / 주임: 김정욱 신부, 회장: 박찬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10월 21일(일) 본당
주임: 이정민 신부, 회장: 안승천 안드레아

'2,000차 주회' 축하합니다.



김해성당, 사랑하올어머니 Pr.
10월 10일(수)
주임: 정상천 신부, 단장: 성춘자 헬레나



신선성당, 증거자들의 모후 Pr.
10월 11일(목)
주임: 이민 신부, 단장: 정형자 마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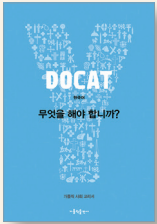
반송성당, 바다의별 Pr.
10월 17일(수) / 주임: 김종규 신부, 이창주 신부, 단장: 이옥자 마리아



11월의
도서

DOCAT_무엇을 해야 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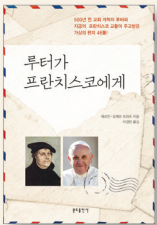
YOUCAT 재단 지음 ■ 김선태 옮김
가톨릭출판사 ■ 13,000원



DOCAT은 가톨릭 교회의 사회교리를 문답 형식으로 쉽게 풀어 쓴 교리서입니다. 이 책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뜻과 교회가 사회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알려줍니다. 일상에서 신앙을 어떻게 실천할지 고민했던 분들,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에 대해 궁금했던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해 주세요.

루터가 프란치스코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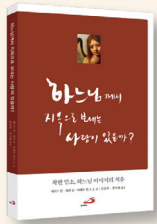
헤르만-요제프 프리슈 지음 ■ 이경란 옮김
분도출판사 ■ 16,000원



1517년, 독일의 한 젊은 수도자가 95개조 명제를 내걸으며 가톨릭과 개신교는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가난한 이들의 형제를 자처하며 선출된 교황이 누구보다 교회 쇠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마르틴 루터와 프란치스코는 가상의 대화를 나누며 500년이란 분열의 골을 사이에 두고 '공동의 믿음'을 찾아 나섭니다.

하느님께서 지옥으로 보내는 사람이 있을까?

데니스 린, 쉴라 린, 마태오 린 지음 ■ 11,000원
김인호, 장미희 옮김 ■ 성바오로출판사



이 책은 저자들의 피정 강의를 바탕으로 엮여 있습니다. 1부는 '하느님 이미지의 치유'에 대한 것으로, 그동안 잘못 인식되어 온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로 잡는 이야기, 그리고 2부는 '질문에 대한 응답' 형식으로 1부에 언급된 주제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질문들에 대한 일반적인 것과 그에 대한 학문적인 답변을 싣고 있습니다.

본 당

이기대성당 성요셉성가단 제5회 정기연주회

· 10.28(일) 17:00 · 이기대성당 성전
문의 : 010-4546-2368

동래성당 관리장 구함

자격 :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제출서류 : 이력서, 교적, 자기소개서, 추천서
접수 : 10.29(월)까지 / 문의 : 555-2295

반송성당 사무장 구함

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교적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사제추천서 / 문의 : 542-1530

정관성당 사무장 구함

자격 : 회계, PC능숙, 1종면허 / 문의 : 727-8868
제출서류 : 이력서, 세례증명서, 주민신부추천서

대연성당 영어교실

기초반 : 10:00~10:50 화/목/반, 수/금반
중급반 : 11:00~11:50 화/목/반, 수/금반
회화반 : 12:00~12:50 화/목/반, 수/금반
· 11.6~12.31, 2개월 3만원 / 문의 : 010-8501-9250

기관·제 단체·위원회

푸르실로 참가 신청 접수 및 마감

제413차(형제) : 11.1(목)~4(일)
제414차(자매) : 11.22(목)~25(일) / 마감 : 11.16(금)
문의 : (055)388-5734, 388-5733(팩스), 본당 간사

부산교회사연구소 세계교회사 특강

· 매일 둘째주 화요일 19:00~21:00 (2년 과정)
· 가톨릭센터 3층 교육실 / 강사 : 한윤식 신부
문의 : 462-1784

부산선택주말 제88차

· 11.16(금)~18(일) · 푸른나무 교육관
대상 : 40세 이하의 청년, 비신자 환영
접수 : 10.20(토)~11.10(토) / 참가비 : 12만원
문의 : 010-6866-9791, cafe.daum.net/pusanchoice

JOC(가톨릭노동청년회) 추모 미사

· 11.10(토) 19:00 · 사상성당 옆 노동사목센터
문의 : 010-5594-6686

가톨릭센터 사무실 임대

용도 : 사무실 6층 (51,200평 / 15,888평)
문의 : 462-1870(가톨릭센터 행정실)

가톨릭심리상담소 행복나눔의전화 : 463-7866

상담 : 월~금 10:00~16:30(중구 대청동)
내방상담 : 신자, 비신자 및 타종교인(전화 예약)
청소년 진로 및 심리상담 : 토요일 10:00~16:30
상담사 : 조옥진 신부(상담심리학박사) 및 전문상담사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996. 11. 1. 조장래(베드로) 신부님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 후원회 월미사
· 10.29(월) 11:00~15:10
양형영성체, 도유와 안수 / 중식 제공
- 젊은이 기도회
· 10.29(월) 19:30 전포성당
· 10.31(수) 20:00 울산대리구 별관
-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과 함께하는 54일(9일)기도
· 10.31(수) 11:00~16:00 (버스 운행합니다)
강사 : 현진섭 신부(꽃동네회)
- 금요철야기도회
· 11.2(금) 23:00~3(토) 04:00
강사 : 김대성 신부(청소년사목국장)
- 29기 심화 2단계 3차
· 11.4(일) 10:00~16:00
회비 : 1만원(성경, 미사도구, 필기구 준비)

부산ME 37주년 가족모임

· 11.3(토) 08:40 접수, 15:30 파견미사
· 지산고등학교 강당 / 문의 : 010-5805-0411
준비물 : 간편복, 도시락, 미사 준비

파티마의세계사도직 성모신심피정

· 10.29(월) 09:30~16:30 · 푸른군대 경당
강사 : 서창규 신부(광주 가르멜수도회)

첫 금 철야 첫 토요일 신심 미사

철야 : 11.2(금) 21:30 푸른군대 경당
강사 : 강현철 신부(광안성당 주임)
신심 : 11.3(토) 09:30 기도, 11:00 미사-생명수호(태아)를 위한 십자가의 길, 아가봉헌 및 갱신 있는

성모님께 봉헌을 위한 33일 묵상회

· 11.1(목)~12.8(토) 14:00~17:00 · 푸른군대 경당
강사 및 미사 주례 : 사제 및 수도자
신청비 : 2만 5천원(교재 지참 2만원)
문의 : 646-3746(파티마의세계사도직)

바로로아람터 후원회 미사

· 10.29(월) 10:30 · 바로로아람터
문의 : 514-6988

소화영아재활원 후원회 미사

· 10.29(월) 13:30 · 소화영아재활원
문의 : 644-1729, 0272

울산가톨릭합창단 제17회 정기연주회

Antonio Salieri - Missa in D (Emperor)
· 11.17(토) 19:30 ·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지도 : 이강우 신부 / 지휘 : 조현수, 피아노 : 손혜정, 김효성 / 문의 : 010-3919-4973(총무)

혼인미사 예식 및 예약 안내

금, 토, 일, 공휴일 : 11시, 13시, 15시, 17시

문의 및 예약 : 051.441.3500 (수~일)

* 2018년 성전봉헌기념 특가 예약 중 *



부산가정성당
Matrimonium · AMOR · Familia

목주반지 전문김방 다양한 예물, 커플링, 패션제품 서울공예사

범일동 역 12번 출구 중앙 귀금속 115호
(주.야) 631-5006, 631-5007
황인환(가롤로)·김경자(모니카)

속편한내과, 영상의학과

간, 소화기병 전문 진료, 종합검진, 보혈공단검진
진단방사선 전문검사(초음파, 컴퓨터 단층촬영)
· 소화기내과 원장 김주호(스테파노), 김진도(안드레아), 허정호(루카), 조성락, 한서름, 이정현
· 진단방사선과 원장 : 임성영, 박상욱
554-1088/동래지하철역 1번 출구 맞은편

분도목공소

제대, 강론대, 장례틀 등 각종 성구 제작
www.bundwood.kr
공 장 : 262-1959
대표번호 : 1544-2391

○ 등금신청에서 케어까지
○ 가족돌봄의 어려움을 덜어드립니다
○ 국비지원(85%~100%)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민병덕 (사도요한) 010-7448-7858
가인방문요양센터

부모사랑라이프

크루즈여행상품, 상호상품
지점장 후보, 센터장후보 모집
회원모집사원, 장례도우미 모집
주부환영, 여성환영, 초보환영, 투잡가능
만고! 함께 성공하십시오! 교우님 연락주세요
한혜영(요셉) 010-7430-3030

SINCE 1965 송월타월 부산진대리점

(부산진시가지, 우리은행 옆)
T. (대) 632-5690
010-4807-5690
양홍식(토마스) 유명애(루시아)

수려안의원 성형외과·피부과

정욱 731-6885 (바로로)
장산역 화인코리너센터 6층 (10번출구)

건설현장의 꽃 조은 이동타워 크레인

독일 LIEBHERR MK80.88.100.110 등
MK80-마스타30M 짙42M엔드 1.7톤작업
MK100-마스타35M 짙52M엔드 1.6톤작업
MK110-마스타35M 짙52M엔드 1.8톤작업
장비임대, 현장담사(상담함형)
1833-6368, 010-3831-2403
심현진 (프란치스코)

포장이사 전문업체 성신익스프레스 (영구크린 부산지점)

이사와 청소를 한번에 해결해드립니다
242-4222, 1522-4324
www.ss0924.com

삼진커텐

수입커텐, 완제품커텐, 우드브라이트, 콤비브라이트
이영복(요셉)·김미현(마리아)
010-8546-2453
부산진시가지 1층 11호문 앞

울산 파티마의세계사도직 월미사 및 연합셀기도

· 11.13(화) 13:00 연합셀기도, 14:00 미사
· 복산성당 / 문의 : 010-2428-5785

아뉴스테이합창단 성음악 미사 및 단원모집

· 10.30(화) 19:30 · 양정성당
지도신부 : 임석수 신부 / 지휘 : 최금화
입단문의 : 010-3077-3217(단장 황광호)

안젤리카그레고리오합창단

창단 30주년 기념 제10회 정기연주회

· 11.4(일) 19:00 · 오륜대순교자성지성당
지휘 : 안창섭 / 문의 : 010-3561-9363(단장 김옥분)

르보야즈보칼레앙상블 바로크 음악의 밤

Dies Irae(진노의 날) 릴리 (한국초연)
· 11.10(토) 19:3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지휘 : 이상훈, Sop. : 강혜정, 피아노 : 권선경, 오르간 : 이효진 / 전석초대(전화-예약 519-5661~3)
문의 : 010-3586-1938

체코세베라첵여성합창단 공연

· 10.31(수) 19:30 · 서대신성당
문의 : 010-4170-6588(주최 : 한국콜핑협회)

평신도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대상 :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
수강신청 : 본당 사무실, 가톨릭센터 홈페이지
(www.bccenter.or.kr), 신학원 카페(cafe.daum.net/catholic-sinhak) / 문의 : 462-0334
(월~금, 14:00~17:00), logos1981@daum.net

교육·모집·기타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후원미사

· 11.2(금) 11:00 · 남천성당
문의 : 582-1774, 010-9081-1743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소리 풍경
소리로 만나는 영화
배리어프리 영화 콘서트

11.5(월) 15:00 가톨릭센터 소극장

1부 배리어프리공연 퓨전국악팀 <음악대륙 가야>
2부 무료영화상영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문의 051-600-8800(부산가톨릭평화방송)

들꽃마을 부산 영성 강의 및 미사

· 10.29(월) 14:00 / 문의 : (054)955-4133~4
· 부산종합사회복지관(망미성당 옆)
지도 : 최영배 신부(영성강의, 미사 주례)

영원한 도움의 성모 9일 기도와 미사

· 10.30(화) 14:00 · 서면성당
교리강의, 미사 전 후 고해성사
주례 : 구속주회 신부 / 문의 : 010-7132-6379

이태석신부 참사랑실천사업회 후원회 미사

· 11.3(토) 10:00 · 송도성당
문의 : 241-1601, 253-1601

올리베타노성베네딕도수녀회

해바라기 가을피정
· 11.10(토) 16:00~11(일) 15:00
· 부산 성분도 은혜의집 / 신청 : 11.6(화)까지
대상 : 35세 이하 미혼여성 / 회비 : 2만원
문의 : 010-8551-3312(대건수녀)

청주교구 성령쇄신봉사회 무료 치유 피정

· 11.2(금) 18:00~4(일) 15:00 / 무료 숙식
문의(010-2373-0125) : 부산역(10:10)-서면우체
국 12번 출구(10:20)-시청 건너 4번 출구(10:25)-
동래 전철 3번 출구(10:50)-감해시청 건너(11:10)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성령통독피정

· 11.3(토)~11(일) / 회비 : 48만원
문의 : 010-3340-0201, 010-4993-4394

아씨시수녀들과 수도생활체험 피정

· 11.3(토)~4(일) / 대상 : 35세 미만 여성
문의 : 010-5313-0241(아씨시의프란치스코전교수녀회)

한티순교성지 피정

· 11.5(월) 10:00~11(일) 15:00
주제 : 예수마음기도(침묵피정)
강사 : 권민자 수녀(예수마음기도선교회)
문의 : (054)975-5151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창립 100주년 감사미사

· 11.24(토) 16:00 · 명동대성당
주례 : 염수정 추기경
문의 : (02)926-1217(성골롬반외방선교회)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시	장소	문의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11.4(일) 14:00	부산 분원	010-6271-4110
성골롬반외방선교회	11.4(일) 10:00	서울 돈암동 본부	02-924-3048
성베네딕도회왜관수도원	11.10(토) 15:00~11(일) 13:00	왜관 수도원 본원	010-8353-2323

부산가톨릭대학교
기본이 충실한 대학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2018학년도 겨울학기 프로그램 강사 모집
접수 : 11월 23일(금)까지
문의 : 510-0951~3, http://edu.cup.ac.kr

부산성모병원
2018년 뇌졸중의 날 건강강좌
· 10/31(수) 14:00 · 4층 베네딕도홀
※ 소정의 기념품 증정도 있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문의 : 933-7957(신경과 외래)

가톨릭신문 복음 문화 나눔 행복 한 세상

<무료영화상영> "가톨릭신문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창세기 11.19(월) 19:00 가톨릭센터 소극장
18시 후원 감사 미사(경당) / 다과 / 영화관람
문의 : 462-1870 / www.bccenter.or.kr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톡 플러스친구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p>준재활요양병원 재활중점/노인요양/외래진료 (통증치료, 신경·정형외과) 부산시 동래구 총령대로 372(안락동) 상담, 문의 525-7711 병원장 최준식(안도니오)</p>	<p>해상, 물류, 보험, 기업법무, 영문계약, 건설 부동산, 각종 민, 형사 및 가사 변호사 직접상담 법무법인 인화국제 변호사 이정민(베로니카) 503-0037, fax 503-8998 Email : lawyer.jmlee@gmail.com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5번길 6 은하빌딩 2층</p>	<p>동래로타리 독일보청기 교우특별할인 방(아브라함) 송(아가다) 555-5777 지하철 수안역 7번 출구 앞(국민은행 옆)</p>	<p>잇몸치료/보철임니/임플란트 박진철치과의원 원장 박진철(토마스) 552-2811 동래시장 횡단보도 앞 2층</p>	<p>삼성내과 엠엘영상의학과의원 류마티스내과, 대장내시경, MRI 내과 의학박사 : 박인호(루카), 한경문 소화기내과 : 최평락, 유원희, 남화성 류마티스내과 : 서수홍(리파엘) 영상의학과의원 : 박재영, 윤지영 산부인과 겸직 : 박정미 하단역 2번 출구 삼성메디칼 9~12층 208-5566</p>
<p>치매나 노환으로 아픈 부모님께 더욱 직접 요양보호사를 보내드립니다 (주)라파엘안나노인복지센터점 시설장 양재순(안나) 010-5923-1314 장기요양 1-5등급 받으신 분들은 바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아직 등급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위해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p>	<p>동래 광안 참사랑요양병원 뇌졸중, 통증 재활 치료, 척추 손상 치매, 중풍, 간병 치료, 양·한방 협진 동래 : 553-0050 추홍수(아고보) 광안 : 751-1515 김명희(아네스)</p>	<p>미래고속관광 45인승/리무진 관광버스 22대 성지순례, 결혼식, 각종행사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 대표 우종한(리차드) 055-333-6300, 010-3720-0303</p>	<p>요양전문병원 달맞이요양병원 노인성 치매 중풍 말기암 호스피스 24시간 간병 상담 : 010-3845-3410 (이진매) 744-5275, FAX 744-5278 (토마스아퀴나스) 부산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117번 나길 30</p>	<p>SM수맥휴심대 거실 황토스파 평화방송, 신문광고 중 주보 지참 교우 우대 1588-5335</p>